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현 명 호 *

최 문 선 **

개 요

- I. 문제제기
- II. 부부갈등의 개념적 고찰
- III. 아동에게 유해한 부부갈등의 특성
- IV.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내적인 과정
- V.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 VI. 부부갈등의 영향에 관한 과정-중심적 접근: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
- VII. 논의 및 대처방안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I. 문제제기

가정은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피로해진 심신에 휴식을 제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주는 혈연으로 구성된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및 성역할의 과도기적 혼재, IMF 경제난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정서적 기능으로서의 가정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부와 그들의 자녀 이외에 다른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의 형태에 비해 부부간에 서로 의존하는 경향성과 애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부갈등은 심화되며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변화는 부부문제를 일으키고 아동에게도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생활하게 되는 원천이 가정이고, 차츰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가정의 양육배경과 부모교육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은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있어 부모란 최초로 갖게 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인 동시에 모델링의 대상으로서 근본적인 행동양식이나 건전한 적응양식을 배우는 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생활의 일상적인 한 부분인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양식 및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중요한 모델링 대상이 된다.

이처럼 아동은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부모의 생활방식을 본보기로 삼고 부부간 상호작용 형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아동기와 청년기에 성공적인 발달과정을 밟음으로서 역량있는 성인으로

로 성장하는 반면, 부부불화나 이혼 등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황폐화와 가출,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며 연령별로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가정환경 특히 부부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모관계가 부모 자녀관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여년 전부터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연구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부부문제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Emery, 1982; Grych & Fincham, 1990; Davies & Cummings, 1994; Erel & Burman, 1995;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Cummings & Davies, 2002). 즉,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해치게 되어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혼생활의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Emery(1982)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모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 내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특히, Grych와 Fincham(1990) 그리고 Davies와 Cummings (1994)는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매개하는 가족 내 요인을 밝히

고 그 경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을 위에서 구분한 주제에 따라 고찰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부부갈등의 개념적 고찰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견해·주장·이해 등이 뒤엉킨 복잡한 관계 혹은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나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갈등을 얼마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을 부부간에 욕구가 상충하고 목표와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Strauss(1979)는 부부갈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특히 행동 수준의 갈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행동전략으로서 갈등이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일 때(예를 들어, 비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에는 대립 자체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어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민식(1999)도 부부갈등이라는 개념을 ‘부부가 서로

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Strauss(1979)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부부갈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부부갈등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호 이익과 태도에서의 불일치, 혹은 불만족감이나 부정적 감정의 정도와 같은 심리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들(예를 들어, 결혼적응도, 결혼만족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Jenkins와 Smith(1991)는 관찰가능한 외현적 부부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심각하게 위협적이지 않은 결혼생활의 긴장과 부적응 상태보다 아동의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외현적인 부부갈등과 내재화된 결혼생활의 부적응 상태가 서로 상관이 높고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외현적인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부부가 외현적 갈등과 내재화된 부적응 상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구성요인이 서로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Joules, Murphy & O'Leary, 1989).

또한,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체될 위기에 있으나 아직 해체되지 않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과 가정의 해체 후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부부갈등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측정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시기와 변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더욱 명확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현적인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어 부부갈등을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부분적으로는,

결혼생활의 부적응 상태를 반영하는 심리내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Ⅲ. 아동에게 유해한 부부갈등의 특성

아동의 행동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으로 부모의 결혼관계의 특성과 양육행동을 언급하고 있으며(김소향, 1994; 이미식, 1999),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의 성인애착관계를 언급하고 있다(Cummings & Davies, 1994). 물론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지지체계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 성장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성영혜, 1993).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의 발생률과 관계가 있고(이미식, 1999), 이혼하지 않은 가족이라도 갈등이 지속적이고 높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문제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Katz & Gottman(1993)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이 이혼보다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부부갈등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상에 따라 아동이 받은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은 빈도, 강도, 내용, 해결방식, 갈등원인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한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을 살펴 본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일정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우선,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더욱 더 스트

레스를 느끼며 분노와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우진영, 1998). Cummings, Iannotti와 Zahn-Waxler(1985)는 실험을 통해 두 성인간의 갈등을 거듭해서 목격한 아동이 이후에 같은 또래의 놀이 상대에게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잦은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위험환경으로 작용한다.

부부갈등의 강도에 있어서도 가벼운 말다툼에서 신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강도가 낮은 갈등상황은 아무리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아동문제와 무관한 반면, 적대감이나 신체적 공격이 가해지는 갈등상황은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Fantuzzo, DePaola, Lambert, Martino, Anderson과 Sutt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간의 잦은 언어적 갈등은 경미한 수준의 품행문제와 연관되었고, 신체적 폭력이 더해진 언어적 갈등은 임상 수준의 품행문제와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문제와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능과 연관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갈등 형태가 더 심각할수록 아동이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김소향, 1994), 주관적인 우울감과 행동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잔, 1996; 우진영, 1998).

한편 갈등의 내용이 아동의 양육 문제에 관한 것일 때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며, 부부갈등 내용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치심, 책임감, 자책, 두려움 등을 더 많이 느끼고(Grych & Fincham, 1993) 결국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부적응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Buchanan 등, 1991). 또한 갈등내용이 아동과 관련될수록 자기 원망이 높고 불화를 해결하려고 더욱 노력한다(박수잔, 1996).

부부갈등 상황의 해결 여부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 부부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아동의 문제해

결방식에 긍정적인 모델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키는 반면, 부부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모는 가족이 계속 긴장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Grych & Fincham, 1990). Cummings, Simpson과 Wilson(1993)의 연구에서는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한 아동은 갈등 상황만 목격하고 해결되는 과정을 목격하지 못한 아동에 비해 공격성과 스트레스 정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처음부터 갈등이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어른들과 접촉했던 아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해결되면 그에 상응해서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였다(Cummings et al., 1991). 심지어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이 의미있게 감소했다(Cummings et al., 1993).

이처럼 부부갈등은 빈도, 강도, 내용, 그리고 해결여부 등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갈등 특성에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을 차별화하여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부부갈등의 전반적인 영역-심리내적인 측면까지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내적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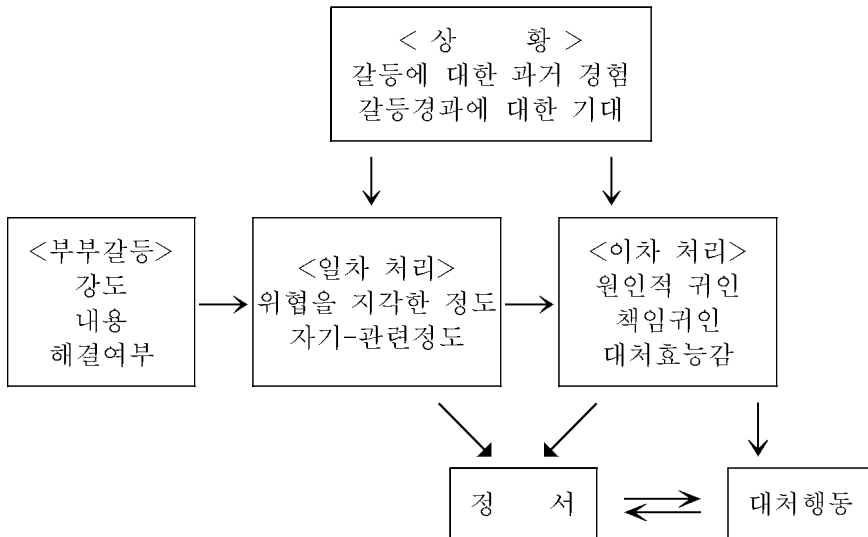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적, 외현적 문제행

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해졌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을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정도를 측정하고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던 1980년대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동이 부모의 갈등 정도를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아동이 부모의 갈등에 별로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의 사소한 다툼이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자극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드물게 경험한 부모의 갈등이 아동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갈등 사건이 아동에게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 모델 및 Davies와 Cummings(1994)의 정서 안정감 가설은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며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여러 후속 연구를 자극한 대표적 접근이다.

1) 인지-맥락 모델

Grych와 Fincham(1990)이 제안한 인지-맥락 모델(그림 1)은 부부갈등의 영향은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평가에 의해 중재된다고 제안하면서 아동이 갈등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와 같은 특징에 따라 아동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



<그림 1> 인지-맥락 모델 (Grych & Fincham, 1990)

며, 여기에 갈등에 대한 과거경험, 가족들의 정서적 상태와 같은 상황적 요인(예, 갈등경과에 대한 기대, 현재 기분)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부부갈등에 아동이 부여하는 의미는 갈등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평가와 갈등의 전후 상황에 따라 변하며, 아동의 평가에 따라 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이 결정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아동은 부모간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부모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Grych & Fincham, 1990, 1993). 아동은 우선 일차 처리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초기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 사건의 특징과 상황적 요인이 이 첫 평가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서적 반응은 사건을 위협적인지 우호적인지를 구분하게 하며 이를 통해 행동을 하게 한다. 부모간의 갈등은 여러 이유에서 아동에게 위협적이다. 우선 부부갈등이 격해져서 부부간에 서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아동이 그 갈등 상황에 개입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의 별거와 이혼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은 위협감을 느낀다.

일차 처리 후에는 이차 처리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시도한다. 이차 처리 단계에서 아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적 귀인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책임과 원망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다. 원인과 책임에 대한 평가는 사건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갈등 자체를 유발시켰다는 신념은 부부 불화가 아동 자신과 어느 정도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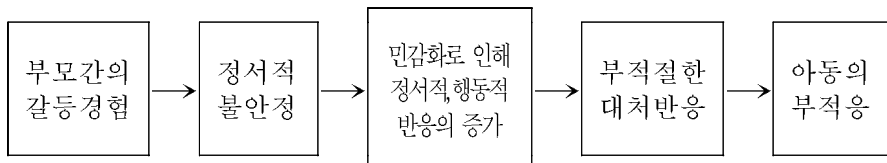
일·이차 처리과정은 결국 아동에게 갈등에 행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여기서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Moos & Billing, 1982).

이러한 대처행동에는 아동의 성별, 연령, 부부갈등에 대한 노출 경험과 같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특성, 가족배경, 부모와의 관계나 분노표현의 유형과 같은 자극적 특성과 상황, 그리고 결과적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준다. 또한 갈등에 대한 아동의 해석이 그 상황에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믿는 아동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귀인할 수 있고, 이런 귀인은 아동이 갈등에 개입하도록 이끌 수 있다(Grych & Fincham, 1993). 이처럼 부모간의 갈등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동이 타인의 분노에 개입하기 위한 필요조건, 즉 인지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서 안정감 가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이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면 부부싸움에 익숙해져 둔감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적어도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는 이러한 상식적 견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부부갈등은 가족 생활을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혹은 신체적 안녕감을 위협하거나 규율의 붕괴나 부모의 정서적 민감성 또는 수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서 안정감 가설(Davies & Cummings, 1994, 그림 2)에 따르면, 아동이 취하는 대처행동의 주목적은 정서적 안정감이며 대처행동은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갈등이 파괴적이고 좋지 않은 부부생활의 반영이라고 평가되면,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정서적 불안정감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동기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갈등의 과거경험'이다. 즉,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매우 민감해진 상태로 이에 반응하며 이러한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간 언쟁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동기화된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정서적 불안정감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아동의 능력을 감소시켜서 두려움, 고통 및 분노와 같은 정서를 더 잘 느끼게 하며, 이는 부부갈등에 둔감해지기 보다 오히려 민감해짐을 나타낸다.



<그림 2> 정서 안정감 가설에 대한 개념화 (Davies & Cummings, 1994)

정서 안정감 가설은 파괴적인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정

서적 불안정감을 유발하고, 정서적 불안정감에서 적응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다. 즉, 정서적 불안정감(정서적 고통, 분노, 행동적 반응)이 증가하면 아동이 부적절한 대처 반응을 하게 되고 적응문제를 간접적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따른 아동의 각성된 정서 및 행동적 반응은 아동의 부적절한 대처반응과 연관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Fantuzzo 등(1991)은 학대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부모간의 갈등에 대해 더 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분노와 가족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아동들이 더 큰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민감화 가설(Cummings et al., 1989; Grych & Fincham, 1990)’과 일치한다. 또한 Hennesy 등(1994)은 학대받은 아동이 보이는 공포 반응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자신에게 향해지는 부모의 결과적 적대감과 공격에 대한 경험을 반영한다고 한다.

인지-맥락 모델과 정서 안정감 가설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위협이다. 그리고 아동이 이를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하여 부적응적인 심리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가 서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 대립이 생겼을 때 역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행동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Davies & Cummings, 1994).

이러한 인지-맥락 모델과 정서 안정감 가설은 부부갈등을 경험한 아동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시기와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

V.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부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부부갈등은 아동의 인지와 지각, 그들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특정 대처 반응을 형성하므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Erel & Burman, 1995; Buehler & Gerard, 2002).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매개한다고 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영향력이 전달된다는 가정이 요구된다. 우선 그 동안 여러 연구 결과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높다는 것은 널리 확인되었다(Loeber & Dishion, 1984; Weiss, Dodge, Bates, & Pettit, 1992). 따라서 매개변인인 부모-자녀관계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Engfer(1988)은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보상가설(Compensatory hypothesis)’과 ‘과잉가설(Spillover hypothesis)’을 논의하고 있다. 보상가설은 부부생활의 질과 부모-자녀관계의 질 사이의 부적 상관을 예측한다. 즉, 스트레스가 많은 부부생활은 부부관계에서 애정이나 만족감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부모는 아동에게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부부생활의 질이 높은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이 부부관계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긴장이 조성된다(우진영, 1998 재인용). 따라서, 보상가설은 긍정적인 부부관계의 질은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연합되고, 부정적 부부관계의 질은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연합된다고 설명한다. 이 가설은 부부불화가 있을 때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이뤄질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부불화의 영향을 막아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보상 가설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보호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갈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잉가설은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정한다(Engfer, 1988). 이 가설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즉, 만족스럽고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갖는 부모는 아동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이거나 갈등이 있는 부부관계는 부모를 초조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여서 아동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덜 민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연합되고,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연합된다. 과잉가설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부부갈등의 수준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존재하면 부모-자녀 관계 역시 저하될 것이라고 본다.

Erel과 Burman(1995)은 광범위한 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생활의 문제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잉가설을 지지하였으나 보상가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보상가설은 그 자체로 이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와 부정적 관계가 있어서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의 부모와 자녀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Erel과 Burman(1995)연구는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가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맥락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이민식(1999)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내면화 문제에서는 결혼생활의 부적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Fauber 등(1990)은 내면화 장애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만 유의하고 외현화 장애에서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갈등이 존재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이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Osborne와 Fincham(1996)은 남녀 모두 내면화 장애에서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 경로가 둘다 유의하였으며, 외현화 장애는 여아의 경우에 간접경로만 유의하였고 남아의 경우는 직접,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

왔다. Harold 등(1997)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간접 경로만이 유의하였고,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여아에서는 간접 경로만 유의하였으나 남아에서는 직접, 간접 경로 둘 다 유의하였다. 또한 이민식(1999)의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다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와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가 둘 다 유의하였다. 한편 외현화 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어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외현화 문제로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sborne과 Fincham(1996) 및 Harold 등(1997)에 의하면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감정, 훈육의 문제 등 그 내용이 무엇이건 부모-자녀간의 문제가 아동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정 수준과 방법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한 부모의 세 가지 부정적 양육태도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첫째,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적대적, 공격적 태도와 감정을 나타내는 ‘적대적 태도’, 둘째, 아동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아동의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부 및 무관심’,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부모의 문제에 관여하고 부모의 안녕에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통제’이다.

적대적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적대적 감

정 때문에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분노를 느끼고 활동성이 저하되며 불편감과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3개월된 유아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Cohn & Campbell, 1992). 이처럼 부모의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위협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에게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빠져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며 위축된 양상을 나타내거나 부모의 적대적 태도에 반발하여 행동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Davies & Cummings, 1994).

거부 및 무관심은 가족 구조 이론인 Minuchin, Rossman과 Baker(1978)의 우회(detouring) 혹은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부모와 가족은 아동의 잘못과 문제 행동에 대해 집중하므로써 부부 하위체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에 기울이던 주의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은 부부 하위체계에 대한 긴장을 감소시키지만 부모가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을 초래한다(Fauber et al., 1990). 또한 지속적으로 갈등이 심한 부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된다. 결국,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자녀의 요구를 귀찮게 여겨 결과적으로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Davies & Cummings, 1994). 아동에 대한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는 아동의 수동성, 불복종, 자존감 저하, 자기-통제의 결여, 사회적 유능성의 감소 등과 상관이 높다고 한다(Hetherington et al., 1992).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편안하게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정서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런 방식의 통제가 지속되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애정이 철회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 Fauber 등(199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내면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증상과는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처벌을 포함하는 ‘엄한 훈육방식’, 자녀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여’, 그리고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자녀를 혼자 두는지를 알아보는 ‘부모의 존재감’ 요인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훈육방식이 엄하고 관여가 적으며, 부모의 존재감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나타났다(Buehler & Gerard, 2002). 그러나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지 중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VI. 부부갈등의 영향에 관한 과정-중심적 접근; 발달정신 병리학적 관점

최근에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과정-중심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과정-중심적 접근은 구체적인 맥락, 역사, 시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의 발달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반응과 패턴을 기술하는 것이다. 더욱이, 역동적인 분석 수준에 대한 과정을 보는 데, 역동적 과정이란 독특하고 때로는 복잡한 아동의 기능,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구성과 시간에 따라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반영하는 다양한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과정-중심적 접근의 목표는 인과 요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리고 왜 심리적, 생리적, 혹은 기타 다른 반응이 시간에 따라 역동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정-중심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정서, 생리, 유전, 그리고 인지적 역동구조와 아동에게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강조하는 다양한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 둘째, 영향력있는 요인을 통한 더 확장된 인과망(예, 다차원적 과정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그러한 요인간의 상호관련성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 셋째, 인과적 과정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차원과 사회적 맥락 수준 간의 상호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간, 가족간, 공동사회간, 인종간, 그리고 문화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다(Cummings & Davies, 2002).

이러한 접근을 위한 구조로써, Cummings와 Cummings(1988)은 확장된 과정-중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조사영역을 규명했다. 그것은 맥락/자극 특성,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의 특성과 배경, 시간, 그리고 결과이다. 첫째, 맥락/자극 특성은 부부갈등의 다른 맥락/자극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스트레스와 대처는 반응 수준으로 아동의 심리적 반응과정을 탐색하는 것이고, 셋째, 아동 특성과 배경은 개인적 아동 특성 연구, 가족력과 배경, 그리고 다양한 맥락 요인(잠재적 중재변인 혹은 매개변인으로써의 영향)을 말하며, 넷째, 시간은 즉각적인 효과와 추후 효과를 포함하는 시간으로 관련 과정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더 많은 탐색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아동 적응 결과를 포함하는 아동의 성과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비교적 다른 요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예, 시간-관련 과정) 반면, 몇 가지 요인은 여러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Fincham & Grych, 2001). 더욱이, 어떤 연구방향은 양육태도(parenting)에 의해 변화된 매개효과처럼 아동에게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Buchanan & Waizenhofer, 2001; 이민식, 1999). 이를 토대로 최근 연구(Cummings & Davies, 2002)에서는 과정-중심적 연구에 관해 새롭게 드러난 주제를 살펴보았고 동시에, 부부갈등이 가족 맥락에서 발생하고, 가족요인(예, 부부갈등, 모성우울, 양육태도)이 동일선상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모성 우울과 부부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때, 아동의 적응에 연합효과가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1994b; Downey & Coyne, 1990). 동시에, 특정 부부불화의 충격을 보여주는 증거는 부부갈등과 폭력이 아동의 성장을 예측하고 이후 다른 가족과 생태적인 특성을 규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ergusson & Horwood, 1998).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과정-중심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과 부부갈등과 다른 가족 요인이 미치는 다차원적 통로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아동관계와 같은 하나의 가족 체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확장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른간의 관계 기능(혹은 역기능)을 고려하고 부부갈등이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타당하고 정교한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 과정(예, 양육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정-중심적 접근모델은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는 개념적으로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로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Cummings & Davies,

2002). 그러나 다차원적 영역과 반응(예,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모든 통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더 확장된 연구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발달정신병리학은 병인, 분류, 아동문제에 대한 발달적 과정을 설명하고, 가족 체계과정과 맥락내에서의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달정신병리학자는 장애란 일탈행동으로서 특정 발달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과정-중심적 모델에서 확장된 인과망에서 나타난 변인은 발달을 중심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위험요인일 수도 있고 보호요인일 수도 있다. 발달정신병리학에서는 인과 변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연구에서 비록 부부갈등을 동질구조로 고찰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부갈등의 효과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파괴적인 형태의 부부갈등으로는 신체적 공격, 위협, 언어적 분노, 비언어적 분노, 철회, 냉대, 그리고 부부간 갈등 해결의 부족과 같은 것이 있지만 부부갈등의 건설적인 형태로는 지지하기, 문제해결, 애정, 유머, 사과, 타협,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 등이 있다. 이렇게 부부갈등이 파괴적인지 건설적인지에 대한 가족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부부갈등이 초래되고 아동의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Cummings & Davies, 2002).

발달정신병리학적 접근은 시간에 따라 두 가지 변수가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설명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정신병리학은 특정 사회-정서 맥락에서 발달경로에 기초를 둔 인과적 과정의 역동적 패턴을 증명하는 역할도 한다. 즉 스트레스와 대처과정, 아동 특성과 가족 배경요인들이 특정한 맥락과 부부관계의 양상에 따라 아동

발달결과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매개 혹은 중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발달정신병리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병인을 이해할 수 있고, 발달과정과 아동기 장애의 치료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Ingoldsby, Shaw, Owens, & Winslow, 1999).

VII. 논의 및 대처방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갈등차원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탐색할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문화적 요인, 부모적응정도, 가족 수준별 특성, 동료관계, 아동의 성격, 형제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어 수시로 아동의 심리적 기능과 상호작용하여, 결국에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확장된 인과망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이후 또래 관계나 대인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틀을 토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얻어 경험적으로 지지된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

또한 더 나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Buehler & Gerard, 2002).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매개하는 요인과 과정을 찾는 것이다. 일단 부부갈등의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과정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더욱 일반적인 적응문제와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적응문제 중 내면화 장애와 관련되는지 외현화 장애와 관련되는지 밝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동료, 아동 자신 등 다양한 평가자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자료를 얻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나 가정에서의 아동의 기능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부갈등을 바라보는 아동의 지각과 이해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 의존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식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수잔, 1995; 우진영, 1997; 노상렬, 2001). 그러나 아동의 보고만 채택할 경우에는 부모가 주는 정보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보고와 아동보고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원인을 추정해가거나 자연관찰이나 행동관찰과 같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모 보고를 사용할 때는 부와 모가 자녀를 다르게 지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따로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갈등의 노출이 아동에게 장기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 학대, 이혼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이후 아동의 적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에 작용하는 다른 잠재적인 가족 관련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는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어머니 우울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육방식을 변화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를 증가시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남소현, 김영희, 2000; 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 따라서 이러한 변인을 사전에 통제해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부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지어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문제아동을 따로 떼어 관찰하고 개입하는 대신, 가족 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중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노상렬, 2001; Cummings & Davies, 2002). 이러한 시사점은 본 논문을 통해 임상실제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선 아동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의 문제 이면에는 부모의 결혼생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처럼,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 자체의 특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아동이 속한 가정환경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창숙과 유영주(1998)는 부부갈등관계를 해결하고 건강한 상호작용 능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내성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인간 상호작용의 기본 3요소인 인지(역기능적 지각 패턴의 자각 및 재구조화, 인지왜곡 패턴의 자각 및 재조정 등), 감정(아이의 정서특성에 대한 이해 및 효율적 분노조절 능력 향상 등), 행동(건설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바람직한 단계적 문제해결 과정 학습 등)영역의 기능이 모두 원활하게 작용되고 인간에 대한 진실되고 온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내적 변화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부부갈등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부모교육에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적응문제와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부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반응에 대해 서로의 감성을 나누고 지지해 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부모 스스로 치료법을 아동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 및 일반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치료의 중요성을 인식, 구체적인 접근을 통한 활발한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지역별 전문상담자 육성기관을 설치해 효율적인 이용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맥락내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는 관점은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게 해주며 그에 앞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탐지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 참 고 문 헌 >

- 권영옥, 이정덕 (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CI)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소향 (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9-213.

- 박수잔 (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연석 (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영혜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우진영 (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 최영희 공역 (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설출판사.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한미현, 유안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2), 5-21.
- Buchanan, C. M., Muccoby, E. E., & Dornbusch, S. M. (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 Buchanan, C. M., & Waizenhofer, R. (2001).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 children: Considerations of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ucture*. In A. Booth, A. C. Crouter & M. Clements (Eds.), *Couples in conflict* (pp. 149-16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 Cohn, J. F., & Camp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 (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8-985.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Child & Adolescent University Behavior Letter*, 17(5), 1-3.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Cummings, E. M., & Cummings, J. 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3, 296-321.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5). The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Cummings, J. S., Pellegrini, D. S., Motrius, C. I., & Cummings, E.

-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ngfer, A. (1988).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teph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Clarendon Press.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 Sutton, S.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58-265.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ergusson, D. M., & Horwood, L. J. (1998).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and Neglect*, 22, 339-357.

Fincham, F. D., & Grych, J. H. (2001). *Advancing understanding of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In J. Grych & F. Fincham (Eds.), *Child Development and interparental conflict* (pp. 443-45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Hennesy, K. D., Rabideau, G. J., Cicchetti, D., & Cummings, E. M. (1994).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 815-828.

Hetherington, E. M., Clingempeel, W. G., Anderson E. R., Deal, J. E., Hagan, M. S., Hollier, E. A., & Lindner, M. S.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1,2), Serial

NO. 227).

- Ingoldsby, E. M., Shaw, K. S., Owens, E. B., & Winslow, E. B.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parental conflict,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vity, and preschoolers' adjustment problems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5), 343-356.
- Jenkins, N. S.,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u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Effects of maternal mood on mother-son interaction patter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513-525.
- Kitzmann, K. M. (2000).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Loeber, R., & Dishion, T. 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59*, 692-703.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s, R. H., & Billings,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12-230). New York: Free Press.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relation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Strauss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Weiss, B., Dodge, K. A., Gates, J. E.,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a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63*, 1321-1335.